



MBC ‘친절한 선주씨’ 일일드라마 최초 LED 전면 도입 조명 제작기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LED와 조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 빛으로 공간의 경계를 허물다

글. 은동훈 MBC 제작기술국 조명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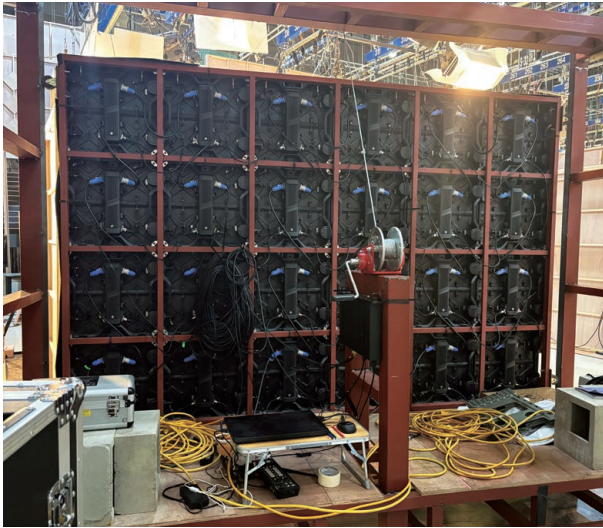
시작하며



MBC 일일드라마 <친절한 선주씨>는 최초로 LED를 전면 도입한 일일드라마입니다. 인물이 움직이는 LED 특성상 기존에 사진 세트와 비교했을 때 영상에 효과적인 사실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카페로, 미용실에서 포차로, 서울에서 뉴욕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고 원하는 밝기, 원하는 색온도로 LED를 재생하여 좁은 세트에서 벗어난 룩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이 있다면 낮이든, 밤이든 빛이 들어와야 하는 조명의 입장에서 LED 도입은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빈틈을 비집고 조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LED와 함께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을 일부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LED 스펙



GX 1.9 저피치의 고해상도 실내형 LED
LDS

Product	500 X 500 X 75.5
Pixel Pitch	1.95mm
Pixel matrix per panel	256 X 256 pixel
Brightness	800 cd/m ²
Cabinet weight	About 8kg
Refresh rate	3840Hz above
Grayscale	18bit
Viewing Angle	160° / 160° H / V (°)
AC Operating Voltage	220V~240V, 50~60Hz
Power Maximum Value	150 W / Tile
Power Typical Value	60 W / Tile
Operating Temperature	-10°C ~ +45°C
Operating Humidity	10%~85% RH
IP Rate	Indoor

LED의 미세한 픽셀 배열은 높은 밝기 및 색온도 LED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TEL. 052.678.7792
www.llds.co.kr
62, Samjak-ro 163beon-gil, Bucheon-si, Gyeonggi-do, Korea

우선 LED 스펙입니다. LDS 사의 GX 1.9 제품을 사용했고 가로 0.5m, 세로 0.5m인 LED 패널을 가로로 6개, 세로로 4개씩 설치하여 가로 3m, 세로 2m로 사용했습니다. 픽셀 피치는 1.95mm이고 색온도와 밝기 조절이 전용 컨트롤 PC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픽셀 피치가 커서 녹화 중에 폴샷에서 LED가 흐르는 모아레 현상이 3~4번에 한 번꼴로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녹화를 끊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녹화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썬의 시간대에 따라 LED의 색온도와 밝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예컨대 저녁 직전에 늦은 오후의 경우 LED 색온도를 의도적으로 낮춰 누런 느낌을 더하거나, 밤에는 의도적으로 색온도를 높여 푸른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LED 사용 시 조명 - 낮



세트 창과 LED 사이에 틈이 좁다 보니 LED 앞 인물에 어떻게 자연광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LED를 비집고 어떻게 빛을 옥여넣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바래가 나지 않는 선에서 LED를 살짝 열어 스탠드를 세워 마치 창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빛을 만들어 자연광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스탠드조차 넣을 수 없을 만큼 LED와 세트 창 사이 공간이 좁은 환경의 경우 커튼 뒤로 LED BAR 조명을 세로로 설치하여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른쪽 커튼은 패널 LED로, 왼쪽 커튼은 세로로 세운 LED BAR로 조명한 장면입니다.



LED와 세트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 위에서 조명하면 자연스럽게 자연광 조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높게 떨어진다
는 단점이 있어 조명 밑에 인물이 설 때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햇빛을 표현하는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유리창 위쪽에 확산이 강한 필터가 유리에 덧입혀져 있어 강한 빛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명감독님이 현실에서도 위에서 내려오는 빛보다 바닥에 떨어져 위로 반사되는 빛이 더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다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LED 밑에 LED BAR 형태의 조명 세 대를 두었고 사실적인 조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트 여유가 없어 LED 설치 후 LED 사이를 열 수도 없고, 위에 타이탄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경우 즉, 자연광을 LED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황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세트 앞에서 카메라 그림자가 최대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스탠드 조명으로 자연광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카메라 쪽이 밝은 그림은 입체감을 깨뜨리고 좋은 그림은 아니나, 낮 쉼에 들어오는 햇빛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 쪽에 창이 있다고 시청자들을 속이면서 자연스러운 낮 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세트에서 창 오른쪽에 최대한 보이지 않게 LED BAR
를 설치해 창에 가까운 인물 뺨에 highlight를 만들 수 있었
습니다.



낮 씬이지만 LED 영상이 실내라 빛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엔 주변 창에서 빛이 쉽게 들어와 더욱 사실적인 조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LED 사용 시 조명 - 밤



밤 씬의 경우 LED 영상의 밝기와 컬러를 보고 분위기에 맞춰 조명을 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차의 경우 전반적인 컬러가 암바와 오렌지이므로 네 번째 사진처럼 등에 Full CTO 필터를 붙여 세트에도 오렌지를 묻혀 LED와 연결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인물 조명도 낮 조명이 아니라 밤 조명으로 바꾸어 얼굴에 음영이 생기도록 조명했고, 얼굴에도 오렌지를 살짝 묻혀 실제 포차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LED와 조명의 합작품





주인공 선주가 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LED에는 큰 달이 떠 있는 바다가 있고 꿈속 장면이기 때문에 포그를 추가해 몽환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푸른 달빛을 받는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인물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명을 모두 블루로 했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꿈과 같은 초현실적인 장면을 LED와 조명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영화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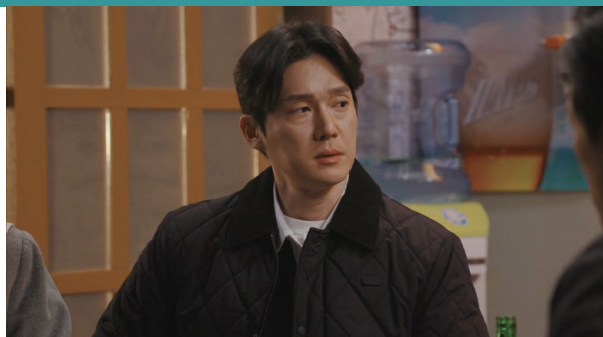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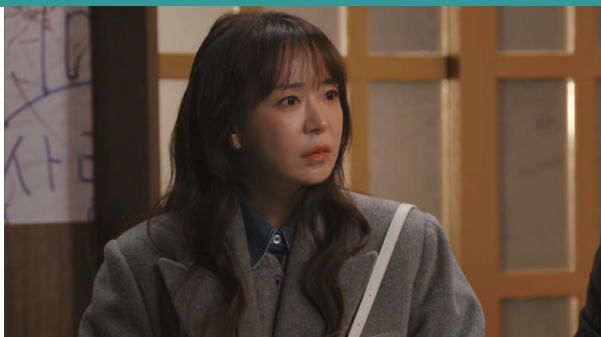
실제 조명 설치 모습



세트에 설치한 실제 조명 사진입니다. 앞 반사(적)/기본 반사(청)/기본 안 반사(노)/백 반사(흰)/바닥 반사(보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텅스텐 650W~1kW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하나씩 설치했고 연기하는 공간, 연기자 얼굴 방향에 따라 켜는 반사 조명이 달라집니다. 또한 낮, 밤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조명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낮/밤에 따라 달라지는 조명





보통 낮에는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주광을 이루고 눈높이 밑에서 반사되어 들어오며, 인물 기준 앞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등이 켜져 있어 등이 주광을 이루고 눈높이 위로 빛이 들어오며, 인물 기준 뒤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낮에는 인물 눈높이 정도 높이이면서 인물 기준 앞에서 오는 앞 반사와 바닥 반사로 보통 인물을 조명합니다. 반대로 밤에는 인물 눈높이보다 높고 인물 기준 뒤에서 오는 백 반사, 기본 안 반사, 기본 반사로 보통 인물을 조명합니다. 인물을 기준으로 보통 낮에는 그림자를 찾기 어렵게 부드럽게, 밤에는 얼굴에 밝고 어두움이 있도록 조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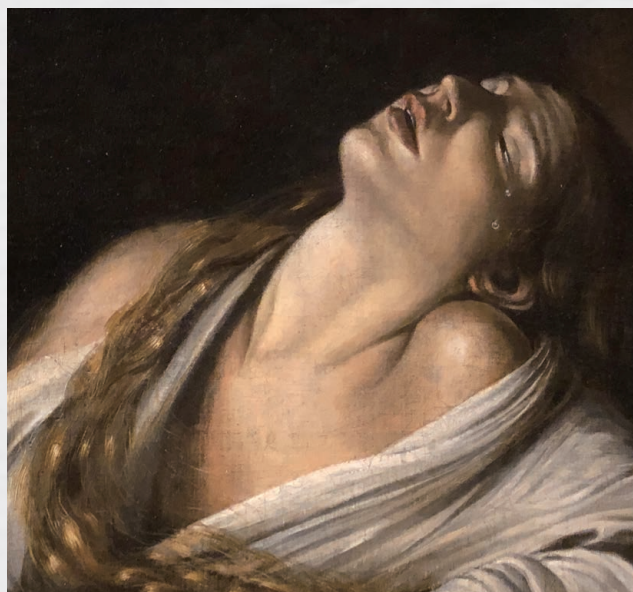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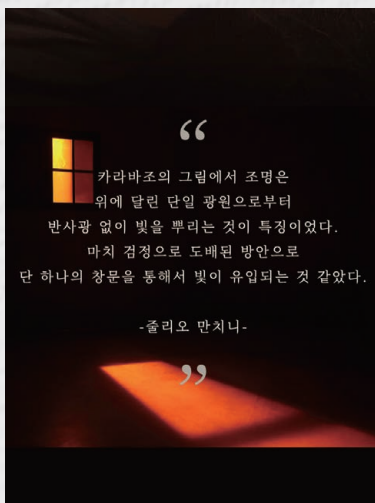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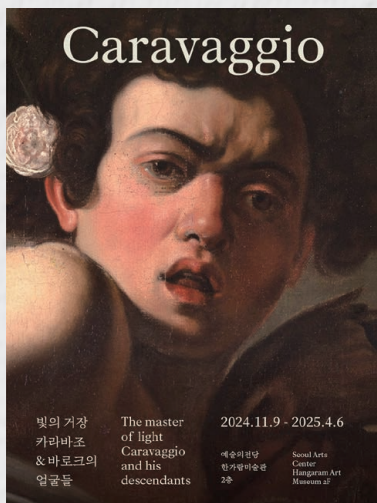


세트도 낮에는 창에서 단일 광원이 들어와 사무실 곳곳은 어둡고 창 주변이 밝으며, 테이블 그림자도 창 반대 방향으로 집니다. 밤에는 위에서 등이 켜져 사무실이 고루 밝고 테이블 그림자도 밑으로 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낮에도 인물을 무조건 부드럽게 조명하기보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 카메라 가까운 쪽을 어둡게 조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밤이라고 무조건 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인물 앞에 스탠드로만 조명하기도 합니다. 둘 다 사실주의에 기반을 둔 조명인 동시에 서사에 따른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현주의적인 조명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시청자로 하여금 인물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조명입니다.

정리하며



얼마 전 예술의 전당에서 <빛의 거장 카라바조 & 바로크의 얼굴들>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들을 보며 느낀 것은 다른 화가의 작품들과 달리 유일하게 그림 내에 빛이 연속성을 가진 채 난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라바조는 분명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가장 사실적인 빛은 무엇인가?’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빛은 무엇인가?’ 거장이 지독한 물음을 던진 작품은 고전이 됩니다.

‘드라마를 하며 장면마다 가장 좋은 빛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가장 사실적인 빛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

‘사실과 아름다움이 충돌할 때 어떤 조명을 해야 할까?’

‘카메라에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배우에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드라마를 하는 내내 감독님과 주고받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빛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고전이 되고, 더 좋은 미디어를 만들고, 더 좋은 문화를 만들고, 더 좋은 한류를 만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작현장의 한쪽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조명 크루들

이번 드라마는 드라마로 원체 유명하신 나재희 감독님 작품입니다. 제가 조감독으로 함께 일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기회가 닿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치 지도 교수님처럼 언제나 놀라운 창의력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나재희 감독님과 반년간 스튜디오에서 함께 고생한 우리 조명 크루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남한산성 세미나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기념사진



남한산성 세미나에서 나재희 감독님과 필자